

131. 선박 도장작업자에서 발생한 유기용제 중독에 의한 정신증 및 우울증, 유기용제 중독에 의한 뇌 위축 및 혈류장애

성별 남 나이 56세 직종 선박건조 작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제OO은 1985년 9월 (주)OO에 입사하여 블라스팅과 도장작업을 하던중, 2007년 11월 OO대학교 병원에서 유기용제 중독에 의한 정신증 및 우울증, 유기용제 중독에 의한 뇌 위축 및 혈류장애를 진단받았다.

2. 작업내용 및 환경: 근로자 제OO은 1985년 9월 20일 (주)OO 입사 이후 1997년 4월 30일까지 선행도장부에서 블라스팅 반장업무를 수행하였고, 1997년 5월 1일 의장제작부로 이동하여 2007년 3월 30일까지 도장작업을 수행하였다. 의장제작부에서 1998년 2월 1일에서 2000년 4월 16일까지는 반장업무와 기술과 파견 등으로 도장업무는 수행하지 않았다. 블라스팅 업무는 연마재를 피가공면에 강하게 분사시켜, 그 충돌에 의하여 금속표면을 연삭하거나 청정화하는 것으로 블라스팅에 사용되는 연마재는 철 성분이며 블라스팅 업무 중에는 분진(산화철)에 노출 될 수 있다. 의장제작부에서 의장품(배관류) 스프레이 도장은 선체도장과 달리 작업량이 적어 작업 시 유기용제에 노출되는 농도는 선체도장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으로 작업환경 측정결과에서도 대부분 노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장에는 1998년 새 집진기가 설치되었고 스프레이 도장 작업 시에는 방독마스크와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였다.

3. 의학적 소견: 약 3-4년 전부터 머리가 아프고, 기억력이 떨어졌으며, 방향 감각도 없어졌다. 2년 전부터는 발기가 안 되었고 오른쪽 팔의 통증 등의 증상이 있었으나 특별한 치료 없이 지내다가 발가락 골절로 산재 요양기간 중 동료의 권유에 의해 검사를 시행하였다. OO병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받은 후 OO대학교병원으로 옮겨 신경과에서 뇌 MRI 및 SPECT, 신경심리검사 등을 받았다. 현재는 2차 의료기관에서 약물 치료 중이다.

4. 결론: 근로자 제OO은,

- ① 유기용제 중독에 의한 정신증 및 우울증, 뇌위축 및 혈류장애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 ② 약 7년 9개월 간 유기용제에 노출될 수 있는 도장작업을 하였지만,
- ③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유기용제는 노출기준 미만의 낮은 수준으로 측정되었고, 작업환경, 작업내용 및 작업량을 고려하였을 때 단기간의 고농도 노출의 가능성 또한 낮으므로,

근로자 제OO의 유기용제 중독에 의한 정신증 및 우울증, 뇌위축 및 혈류장애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었다.